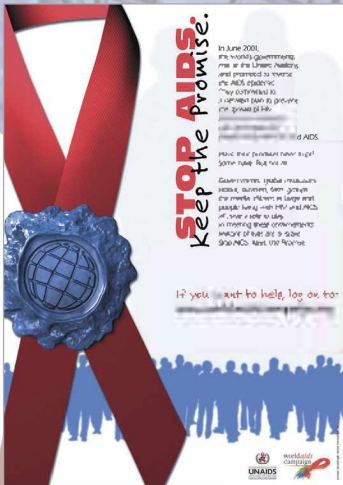


▶▶▶ 제18회 세계에이즈의 날

세계에이즈의 날 이모저모

에이즈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며 올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어 에이즈 인식 증진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유엔에이즈 웹 사이트에 게재된 58개국의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를 보면, 음악회, Dance4Life, 영화제, 캠페인 핸드폰 게임, 퀴트 전시회, 콘서트, 심포지엄, 촛불행사, 에이즈 날을 기념한 각종 공모 등이 있었다. 저자의 주목을 끌었던 몇몇 나라의 에이즈 행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메이카에서는 조찬회의를 이용한 매우 고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조찬회에 정부 고위공직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하며, 유엔에서 정한 “Declaration of Commitment”의 약속을 지키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서인회를 가졌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조찬회의가 11월 29일에 법조계 인사들과 있었다. 특히, 이 행사에서는 감염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완화와 감염인 인권에 대한 회의였다.

11월 30일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자메이카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간주한 항목에 대해 정부가 재고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며 이는 에이즈에 대한 인권노력과 홍보의 결과로 평가하였다.

인도의 에이즈 감염인이 5백만 명을 헤아리고 있어, 그 심각성은 인도 정부나 국제 협력기구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공식적인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이외에도 영화제, 병원 주치의 에이즈 심포지엄 및 포스터전시회, 청소년



건강축제, 혈액 안전성과 에이즈 예방 캠프, 핸드폰을 활용한 에이즈 홍보게임, 달리기 대회 및 에이즈 고아에 대한 바자회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으며 그 주최도 정부와 민간, 병원과 학교 등 다양하였다.

이란에는 약 200,000명(유엔에이즈, 2002년 통계)의 HIV/AIDS 감염인이 있으며, 가장 주된 경로는 마약 주사기 공유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에서는 공식적인 에이즈 행사 이외에도, 동료 교육을 위한 정보 텐트 운영, 축구 경기(Unite for Children, Unite against AIDS), 영화제, 편견과 차별 완화 위한 지지 모임, 음악콘서트, 연날리기 대회, 2005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우표 발행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스위스에서는 유엔본부나 각종 국제기구 사무소가 있어 이들의 참여와 함께 세계 에이즈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개막식은 신나브웨에서 온 조각상 전시회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국제기구에서 보내온 작품 전시회와 리셉션을 진행하였다. "Invest in Women's Solution" 행사가 YWCA 주최로 오찬 행사가 진행되었다. 감염인의 작품을 훌륭한 전시회도 개최되었고, 음악회, 횃불 행진 등이 진행되었고, 이란인들이 HIV/AIDS에 관련된 경험을 표현한 벽화 프로젝트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거리검폐인, 감염인 후원 음악회, 감염인 문예공보전, 영화제(레드리본 페스티벌), 사진 페스티벌 등이 진행되었다.